



1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선포식 2 양승조 지사가 충남 비전 선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 열어 양승조 지사 “환황해 중심 향한 충남의 담대한 도전”

충남 혁신도시 유치 성공을 자축하고,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다짐하는 22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충청남도는 도청 남문 광장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을 향한 충청남도의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한 충남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220만 도민이 힘을 모아 일궈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지사는 충남비전 선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의 염원이자 충남도정의 제1 핵심과제였다”면서 “이것을 우리 충남도민이 해낸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가갈 충청남도의 힘찬 도약은 충남 혁신도시로부터 출발한다”며 “충남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를 중심축

으로 삼아 도내 5대 권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 서산·당진·아산·천안은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로 ▲ 서천·보령·태안은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벨트로 ▲ 홍성·예산은 수소 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로 ▲ 공주·부여·청양은 K-바이오 소재 산업벨트로 ▲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지원체계·지역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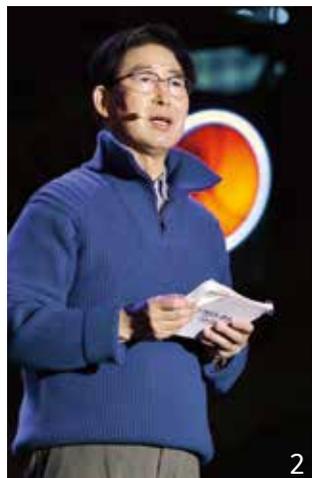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형 뉴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와 수소도시 및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서해안 KTX 도입,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등 국가 발전을 이끌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혁신도시 강소도시권, 천안·아산 스마트도시권, 국가 행정도시권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가 중심축으로서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한 환황해 지역이 이제 경제적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행사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문 소독기 설치, 입장 인원 제한 및 입장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 ⑤



2